

11/26/17

설교 제목: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 (신적인 측면)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6 장 1-14

- (롬 6: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절관주** 갈 5:13, 벰전 2:16
- (롬 6: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절관주** 롬 3:4
- (롬 6: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절관주** 골 2:12
- (롬 6: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절관주** 고후 4:10, 골 2:12
- (롬 6: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 (롬 6: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절관주** 롬 6:6
- (롬 6: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절관주** 요 14:19, 고후 4:10
- (롬 6: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 (롬 6:10)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 (롬 6: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 (롬 6: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롬 6: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절관주** 시 19:13, 시 119:133

(롬 6: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절관주** 롬 12:1, 갈 3:24

사도 바울은 전장인 5 장 20 절 후반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롬 5: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도 바울은 5 장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칭의를 얻게 되어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에 근거해 "죄가 더하면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6 장에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논쟁이 될 수 있는 쟁점을 먼저 질문으로 끌어내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렇다면 결국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많이 짓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트집을 잡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미리 차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논점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좀 더 확실히 펼치고자 먼저 그 이슈를 꺼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을 사용해 설명합니다.

(롬 6: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롬 6: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더 많은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를 신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본문은 신적을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핵심 교리인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에 대해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 장 5, 6 절은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엡 2: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엡 2: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라는 말이 바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합니다.

17 세기 위대한 청교도 설교자 Thomas Goodwin 목사님이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두 거인의 비유(Two Giants)'로 설명한 것을 소개합니다.

교리에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 이 둘이 인류의 대표가 되며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아담과 예수 둘 중 하나를 각자 자신의 대표자로 삼고 살아 간다는 것입니다.

Thomas Goodwin 목사님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두 거인의 비유(Two Giants)'로 설명합니다.

그는 아담과 예수를 두 거인에 비유하고 모든 인간은 이 두 거인인 아담이나 예수의 허리에 매인 벨트 고리에 매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의 허리에 매인 벨트 고리에 연결되어 태어납니다.

그러기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의 허리에 매인 벨트 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인간은 공범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아 영생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의 허리에 매인 벨트 고리에 연결되어 있던 모든 인간도 영생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어야만 하는 운명에서 구원되는 방법이 있으니 곧 아담의 허리에 매인 벨트 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매인 벨트 고리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담의 벨트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벨트 고리에 연결되면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아담의 벨트에 걸려 있는 고리를 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벨트에 고리를 걸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담의 벨트 고리를 풀고 새로이 예수 그리스도의 벨트 고리에 걸어진 우리는 예수님과 갓세마네 동산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벨트의 고리에 걸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어 죄값을 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으며 우리는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벨트 고리에 연결된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벨트 고리에 걸린 우리는 절대로 다시 아담의 벨트 고리에 걸릴 수 없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지옥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벨트 고리에 연결된 사람은 다시 풀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하기도 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 더 많은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으므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영으로 부활을 했고, 육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는 영의 부활이고 나중은 육의 부활입니다.

세례는 바로 이것을 보여 줍니다.

세례식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의미합니다.

(롬 6: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롬 6: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자는 세례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롬 6: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롬 6: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롬 6: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롬 6: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롬 6:10)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롬 6: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천국은 하나님의 지배 영역이고 세상은 마귀의 지배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마귀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세상에서 죄에 대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지배 영역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다는 것은 마귀의 지배 영역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으신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같이 죽었던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지배 영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부활입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인데 전자는 영의 부활을 가리키고 후자는 육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첫째 부활인 영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첫째 부활로 인해 성도는 중생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둘째 부활인 육의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바꾼다는 차원의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옛 사람이 죽고 영생을 가진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롬 6: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롬 6: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므로 죄가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절대로 죄에 복종하지 말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지체'는 몸의 부분들 즉 눈과 귀와 입과 손 발 등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이 지체들을 더 이상 불의를 행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롬 6: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 이행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칭의로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칭의로 입혀졌다는 것은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죽음에서 구원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의 부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라도 육의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 아직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옛 성품인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성품을 가진 새 피조물이 되었지만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육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각자는 자신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마귀가 가져다 주는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옛 성품인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